

# 불교문화재 보존 정책 ‘청신호’

## 문화재 위원 확대 의미

문화재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4명이 위촉됨에 따라 향후 불교문화재 보존, 관리 및 조계종 차원의 의견 반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지난 4월26일 새롭게 출범한 문화재위원회 구성 결과, 인묵스님, 흥선스님, 장적스님, 효탄스님 등 조계종 스님 4명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는 기존 문화재위원회 내에 관례적으로 2명을 위촉하던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조계종은 문화재위원회 내 스님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불교 문화재가 70%에 달하고 있으며, 조계종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역시 전체 문화재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역시 문화재 정책에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내 불교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조계종 스님들의 문화재위원

위촉은 정부의 문화재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불교계가 불교문화재를 주제적으로 관리, 보존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최광식 문화재청장 취임 이후 문화재위원 위촉이 이뤄졌다는 점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에 대부분 문화재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

능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화재위원회 내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들과 동국대학교 교수들도 위촉돼 낙단보 마에불 훼손이나 불국사 삼층석탑 균열 등 주요 사안에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 확대된 만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스님들을 양성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관련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거나 사찰에서도 주제적으로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교계의 노력이 병행돼야 문화재위원회 내에서 불교계의 영역과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세계유산분과위원 장적스님(총무원장 총책특별보좌관)은 문화재와 관련한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적스님은 문화재위원회 내 불교계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데도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니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나 박제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박물관장의 비중이 높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실무적인 경험을 살려 문화재를 보존, 전승, 관리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현장 경험 ‘성보’로 접근…긍정적

## 전문 지식 갖춘 스님 양성 ‘과제’

을 고려할 때도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그동안 스님들의 위원 위촉이 건축문화재분과나 동산문화재분과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위촉 결과 건축, 동산 분과는 물론 무형문화재분과와 세계유산분과로 참여가 확대된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영산재 등의 무형유산과 세계유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 반영이 가

이에 대해 동산문화재분과위원 흥선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위원회에 위촉된 스님들이 늘어난 점과 스님들이 활동하는 재분과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위촉 결과 건축, 동산 분과는 물론 무형문화재분과와 세계유산분과로 참여가 확대된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영산재 등의 무형유산과 세계유산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위원회 내 불교계 참여



# 자비나눔 승가교육 진흥 민족문화수호기금 ‘전달’

## 용주사 불교여성개발원

## 중신회 대불련총동문회

제2교구본사 용주사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및 승가교육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탁했다. 용주사 부주지 성직스님은 지난 4월2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은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용주사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기금으로 2000만원을,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1000만원을 후원했다. <사직>

같은날 포교원 산하 단체들도 잇따라 자비나눔 기금을 기탁했다. 이날 중앙신도회는 민족문화수호기

금으로 1204만 956원을, 대불련 총동문회와 불교여성개발원은 일본지진피해 지원 및 긴급구호 기금으로 각각 500만원과 425만원을 기탁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모아줘 고맙다”며 “5대 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사찰과 단체에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안식 수석부회장은 “5대 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야 불교증흥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 문화재보호 기금을 모으는 등 결사 운동이 꽃 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윤제철 총동문회장은 “사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 산하에 사단법인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통도사 산중총회 공고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스님)는 오는 24일 오후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통도사 중요 현안 및 총림 해제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교구의 재적승, 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인 비구, 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니),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하고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이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이달 말 본사주지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주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 “사설사암 등록절차 강화해야”

## ‘사찰법제정 세미나’서 법안스님 제기

종단 소속사찰로서 권리는 누리고 있지만 의무는 미약한 사설사암에 대한 등록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27일 개최한 ‘사찰법 제정안을 성안하기 위한 세미나’에서 중앙종회의원 법안스님(사진)은 ‘사찰 등록 및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종단 등록사찰 가운데 59%를 차지하는 ‘사설사암’이 종단에 대한 참여도와 기여도는 공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사설사암 주지의 권리는 공찰과 대등하게 주어지는 현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스님은 “사설사암 주지는 종단의 각종 선거시 선거권이나 당연직 교구종회의원으로서 그 권리는

똑같이 누리고 있지만 그 의무는 공찰에 비해 훨씬 적게 부여되고 있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또한 미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안스님은 ‘사설사암 예비등록제도’와 ‘사설사암 등록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설사암 주지에 대한 권리도 종단에 대한 기여도나 참여도를 기준으로 차등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안스님은 법제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중창주’에 대한 권리문제나 장기적으로 주지가 임명되지 못했거나 공석인 ‘관리대상 사찰’에 대한 관리방안을 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찰법’을 통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안스님의 주장 가운데 사설사암에 대해서는 세미나에 참여



로 추진하거나 사설사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면 탈종 등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설사암이 종단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사설사암에 대한 의견대립이 너무나도 첨예해 사찰법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사찰법 제정안에 사설사암 관련 규정은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을 그대로 넣어 사찰법 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 중앙종회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중앙종회의원 지원스님은 “종단등록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거나 사설사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면 탈종 등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설사암이 종단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사설사암에 대한 의견대립이 너무나도 첨예해 사찰법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사찰법 제정안에 사설사암 관련 규정은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을 그대로 넣어 사찰법 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인택 기자



## 현장에서 칠장사 인목왕후 다례제

지난 4월24일 안성 칠장사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거행됐다. 행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재의식이었는데 ‘인목왕후 다례제’가 그것이다. 칠장사가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주지 지강스님의 사찰역사 찾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였다. 스님은 이날 다례제에 앞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원군 김제남(인목왕후 아버지)과 영창대군(인목왕후 아들)의 왕생극락을 위해 저희 칠장사를 원당으로 삼아 제를 모시고 기도하셨다”고 인목왕후와 칠장사의 인연을 설명했다. 난세에 왕후는 칠장사를 원찰로 삼아 기도 정진했으며 칠장사에서 보시한 오불회택화(국보 제296호)와 인목왕후어필철언시(보물 제1627호)가 남아 있다.

이날 행사에는 왕후의 후손인 연안김씨 후손과 전주이씨와 안



## 여태동 기자

tdyeo@ibulgyo.com

성이씨 후손 100여명이 동참해 자신의 조상을 추모했다. 칠장사의 역사찾기와 맞물려 왕손과 사찰의 유대관계가 아주 돈독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칠장사는 인목왕후 다례제를 정례화 할 것이라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칠장사는 어사박문수 백일장도 전국행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칠장사의 역사 찾기가 사찰위상을 높이고 포교에도 도움되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가진 다른 사찰도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불기2555(2011)년도

#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승가고시법 제 9조 및 동 시행령 제 6조의 2에 의거하여 불기2555(2011)년 2급 승가고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하는 스님들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서류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55(2011)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직지사(제8교구 본사, 경북 김천 소재) 만덕전
- 응시 자격 : **승남 20년(1992년 수계자) 이상인 승려로 2001년 ~ 2005년 사이에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 접수 기간 : 불기2555(2011)년 8월 22일(음 7. 23) ~ 9월 2일(음 8. 5)
- 전 형 료 : 10만원(계좌번호 023-01-0534-462 국민은행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시험 과목 및 유효명 배점

| 시간  | 과 목                                      |        | 유형        | 배점   |
|-----|------------------------------------------|--------|-----------|------|
| 1교시 | 교학(선·교·율) 분야 전법포교(복지 포함) 분야 사찰·종단운영 분야 중 | 1분야 선택 | 논술(자유서술형) | 100점 |
| 2교시 | 수행이력 평가                                  |        | 면접        | 200점 |
| 합 계 |                                          |        |           | 300점 |

- 시험 방법
  - 가. 논술(자유서술형)
    - 1교시는 논술(자유서술형) 시험으로 응시자가 선택한 분야에 대하여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위원회에서 예시한 ‘출제핵심단어 및 문구’를 중심으로 3문항을 출제 하며, 응시자는 출제된 3문항 중 1문항을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함.
    - 논술(자유서술형)시험의 답안지 분량은 원고지 2,0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함.
  - 나. 면접
    - 2교시 면접은 응시자가 제출한 수행이력서를 근거로 고시위원스님들이 질문하고 응시자가 답변함.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2011년 11월 11일(금), 종단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 게시합니다.

- 제출 서류
  - 가. 응시원서(소정 양식, 종단 홈페이지 및 교구본사 비치)
  - 나. 수행이력서(소정양식, 종단 홈페이지 및 교구본사 비치)
    - A4용지 5매 이상(컴퓨터로 작성할 시 한글, 글자포인트 12)
      - \* 수기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 다. 수행이력 증빙 자료(졸업증명서, 안거증, 임명장,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 유의 사항
  - 가.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9시30분까지 직지사 만덕전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나. 총점 180점을 취득해야 합격합니다. (단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공지사항)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와 수행이력서 및 출제 핵심키워드**는 교육원과 교구본사에 소정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종단홈페이지(홈페이지⇒종무자료실⇒종무자료⇒교육원)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2급 승가고시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선택과목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선택 이후 과목 변경 불가함)
  - 바. 수행이력서는 내(외)전 교육 경력, 안거, 포교·복지·사회활동, 소임 등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고, 특히 수행이력을 확인하여 점수에 반영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상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응시원서에 가제작을 위하여 ‘기, 가슴돌레, 몸무게’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아. 고시를 위한 개별통지는 시행하지 않으니 신문공고, 종단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살펴 기간 내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 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고시합격을 취소합니다.

불기2555(2011)년 5월

## ☯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지 안